“코로나19, 감기로 오인 환자들 병원 돌며 바이러스 전파”

전남도, 상당수 사례 확인…“기침·발열땐 선별진료소 찾아달라”

“감기로 오인하고 약만 드시고 일상생활을 지속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1주일 전부터 증세가 있었지만, 목감기나 몸살로 오인하고 의원(병원) 세 군데를 돌고 감기약만 드신 사례도 순천에서 있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남 방역당국이 19일 지역민에게 ‘감기 오인’ 주의보를 내렸다. 코로나19를 감기로 오인한 일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달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라는 점도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증세가 몸살, 발열, 근육통, 목 잠김 등 감기 증세와 유사해 코로나에 걸린 주민 상당수가 감기약을 처방받고 지내다 뒤늦게 보건소를 찾아 검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가장 왕성한 증세 발현 후 3~5일 동안 회사 출근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방역망에 포착되기 이전에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뒤라는 것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감기로 오인하고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되는 주민들이 상당수다. 검사 비용은 전액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며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세가 있으면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19일 오후 6시 현재 7개 시군에 걸쳐 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 57명, 광양 32명, 목포 11명, 화순 7명, 여수 5명, 나주 4명, 구례 1명이다.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이 발달한 순천, 광양 등 동부권에 확진자가 집중됐다.

확진자 규모는 지난 7일 3명을 시작으로 12일까지 하루 확진자는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13일 13명, 14일 8명, 15일 11명, 16일 15명, 17일 15명으로 늘어나다 18일 27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발병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311명이다. 지역 감염 262명, 해외 유입 49명이다.

코로나 19, 11월 재확산 기간 전남에서는 5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오후 3시 기준, 93명의 확진자 가운데 50대는 30명(32%), 20대는 21명(22%)이다. 다음으로 30대 16명, 60대 8명, 40대 7명, 10대 5명, 10대 미만 3명, 70대 이상 3명이다.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고령자와 학생 등 유아, 청소년들의 감염자 규모가 눈에 띄게 낮았다. 남성 확진자가 44명, 여성이 49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 마을에 8명 확진…코호트 격리 1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 순천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8일 오후부터 격리조치됐다. /연합뉴스

정부, 이달중 코로나19 백신 ‘비중계획’ 발표

“3000만명분…선도적 백신 업체들과 협상 진행중”

정부는 19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개발 업체들과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달 중에 백신 3000만명분을 어떻게 나눌지 ‘비중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뉴스에서 거론되는 선도적인 백신 업체들과 전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3000만명분의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맞출지 그 비중에 대한 계획을 이달 중에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백신 인프라나 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도 수준이 높고, 구매력도 충분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협상력이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 해외 백신 업체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명 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 구매를 위한 선급금으로 약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협상을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임상시험 결과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95%의 면역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46.1% “코로나 감염, 어느 정도 운이다”

서울대 연구팀 인식조사…젊을수록 운명론적 인식 비중 높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어느 정도 운이다’거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등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질병의 발생을 결정론적으로 보거나 운에 좌우된다고 여기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동일 문항에 대한 지난 5월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내가 감염되냐 마냐는 어느 정도 운이다’는 진술에 ‘그렇다’는 답변은 37.5%에서 46.1%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38.1%에서 46.8%로 각각 8.6%포인트, 8.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젊을수록 질병 발생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본인의 감염이 운에 달렸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6.6%에 달했고, 30대 51.2%, 40대 51.0% 등 절반이 넘었다. 50대는 39.9%, 60대는 37.9%로 40%에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가 감염되는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진술의 동의 정도는 67.8%에서 61.7%로 지난 5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구팀은 질병이 운에 따라 발생한다고 여기면 방역 수칙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10명 중 1명만 ‘높다’고 봤다. 40대 이하에서 11.0%, 50대 이상에서 12.0%였다.

본인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5월 인식 조사와 비교해서는 크게 올랐다. 5월 인식 조사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0대 이하에서 6.5%, 50대 이상에서 9.7%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자신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안 좋은 일이 자신에게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낙관적 편견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은 누구나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전세난 돌파’ 2년간 공공임대 11만가구 공급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30평대도 조성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연합뉴스

연구과제 공모 공고

비앤이테크(주)에서는 회사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2021년 이후 중국의 환경 정책 방향”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연구주제 : 2021년 이후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중소기업 BM 접근 중심으로)
2. 신청자격
 - 정규대학(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해당경력 5년 이상)
3.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0.11.18. ~ 2020.11.25.(18:00)
 - 제출서류 : 연구활동 및 실적서, 연구계획서, 이력서
 - 열람방법 : 비앤이테크(주) 홈페이지(www.bnetech.co.kr) → 공지사항 확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메일 접수(e-mail : bnetech9062@daum.net)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연구소 지원담당 이주헌 과장 062-945-9062

비 앤 이 테 크(주) Bio&Environmental Technology 악취제거설비 탈취/탈황

책임제한절차개시공고(1차)

이 법원 2020책1 선박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6.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다.

다 음

1.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책1 선박책임제한
2. 가. 신청인 : 삼진해운주식회사(선박소유자)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서귀동)
 대표이사 김상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나. 수익채무자
 - 우경인(부산 해운대구 좌동 1348 효성코오롱아파트 112동 1801호, 별지 1 기재 선박의 2등항해사)
 - 한국해운조합(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대표자 회장 고성원, 별지 1 기재 선박의 공동선박보험자이자 단독 선주배상책임보험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별지 1 기재 선박의 공동선박보험자)
3. 주문 : 별지 1 기재 선박의 별지 2 기재 사고로부터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변호사 박정남(사무실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25, 3층, 광주지방변호사회 해남지원 관내 변호사)
5. 책임한도액 : 313,125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공탁된 금액 : 583,351.031원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장소 : 2021. 2. 10.까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종합민원실
7.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 2021. 3. 5. 14: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 법정
8. 주의사항
 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물적손해에 관한 채권)이 있는 자는 그 채권을 제7항 기재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 결정 연월일 : 2020. 11. 16.

2020.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장 : 판사 김재근, 판사 정희철, 판사 김우진

별지 1 선박의 표시
• 선박의 종류와 명칭 : 삼진펙키3호
• 선적항 : 서귀포시
• 총톤수 : 1,375톤
•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 1개
• 선질 : 강
•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엔진 1기
• 진수년월일 : 1987년 7월 28일 /이상

별지 2 사고의 발생
• 발생일자 : 2018. 8. 15. 04:01경
• 발생장소 : 제주도 우도 북서쪽 약 10.6마일(북위 33도 41분 43초, 동경 126도 53분 40초) 해상
• 사고유형 : 기선 삼진펙키 3호가 위 발생일자에 위 발생장소를 항해하다가 선수 구상부분으로 한유코리아호의 좌현 3번화물창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상.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천동 106-14, 천안역사동아라이크텐(아), 103동 2503호
• 계약자 : 윤 소 정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11월 20일

주식 감자 공고

당사는 2020. 11.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총액 금300,000,000원에서 금1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고, 1주당 금액 10,000원 30,000주에 대하여 주주 성덕호, 최숙, 서상택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30,000주중 29,000주에 대하여 균등비율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현재 30,000주에서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11. 20.

주식회사 수푸름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59, 2층 (금호동, 성원빌딩)

대표이사 최 숙

산행안내

11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21일(토) 거창 의상봉·우두산·비계산 Y자 출렁다리,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완주),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 공고

당사는 2020년 11월 19일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함.

1) 발행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41,545주 (1주당 액면가액 금 5,000원)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16,560원
3) 주금납입일 : 2020년 12월 15일
4) 총발행가액 : 금 3,999,985,200원
5) 신주의인수방법 :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인수함
6) 주금납입방법 : 신주납입대금은 부채(차입금)의 출자전환액과 상계처리함.
7) 제3자 배정 내역

주 주 명	주 소	신주배정 주식의 종류와 수
해원에스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39(오선동)	보통주식 241,545주

8) 신주인수권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함.
9)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절차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0년 11월 20일

해원엠에스씨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3길 12

대표이사 황호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병호(691121-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월산로 147-1 (월산동)

피상속인 망 이병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1150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20일

• 상속인 : 1. 이상호(660528-XXXXXXX) 인천 남동구 담방로 22-16, 104동 1002호 (만수동, 금호아파트)
2. 이정자(480815-XXXXXXX)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27, 303동 1802호 (코아루아파트)
3. 이정순(521010-XXXXXXX) 정읍시 학산로 89-71, 203동 803호 (상동, 정읍상동2단지휴먼시아)
4. 이정오(560922-XXXXXXX) 양산시 평산화이로 135, 501동 1206호 (평산동, 선우아파트)
5. 이춘택(590818-XXXXXXX)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84, 106동 1308호(상운아파트)
6. 이춘석(620604-XXXXXXX) 의정부시 신곡로 35, 203동 1902호(신곡동, 동신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11. 20. ~ 2021. 1. 2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이상호의 주소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성인(600615-X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07-9

피상속인 망 최성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652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20일

• 상속인 : 1. 김정자(701226-XXXXXXX)
2. 최용휘(980117-XXXXXXX)
상속인 1, 2의 주소
: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32-3
• 신고기간 : 2020. 11. 20. ~ 2021. 1. 2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정자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이웅(400606-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삼정로 7, 201동 710호 (두암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이웅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702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20일

• 상속인 : 김현정(740329-XXXXXXX) 광주 동구 동계로 38, 106동 602호 (산수동, 무등산 그린웰로제비앙)
• 신고기간 : 2020. 11. 20. ~ 2021. 1.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현정의 주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회사는2020년 11월1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10,000,000원을 금 15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1주당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6,000주에 대하여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의 비율로 균일하게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를 현재 31,000주에서 1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위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0.

주식회사 은성이엔씨

장흥군 장흥읍 행원2길 16-25

대표이사 이 인 성